

빠알리어에서 격(格)의 의미론적 이해를 위한  
kāraka 분석의 중요성\*  
김서리\*\*

I 들어가는 말. II kāraka의 분석.  
III kāraka에 대한 격의 배정과 상호관계. IV 나가는 말

요약문 [주요어: 까라까, 격, 빠알리어 문법, 『갓짜야나 문법』, 『삿다니띠』]

본 연구의 목적은 빠알리어에서 격의 의미론적 이해를 위한 kāraka(문장 속 행위에 대한 명사의 관계) 분석의 중요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빠알리어 전통문법서인 『갓짜야나 문법』과 『삿다니띠』의 문법규칙을 바탕으로 6종의 kāraka와 sāmi의 정의와 유형을 상세히 밝히고, 각 kāraka에 대한 격어미의 배정도 제시한다.

빠알리어 문법은 주격, 대격, 구격 등 특정 격에 해당하는 어미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분리되어 있는 격어미와 kāraka가 배정에 의해 상호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kāraka의 적용범위가 비교적 넓은 뿐만 아니라, 하나의 격어미가 항상 하나의 kāraka와 대응 관계에 놓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kāraka의 정의와 유형을 분석하여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빠알리어 문장에서 기호와 같은 격어미는 kāraka를 통해 의미를 드러내고, 추상적인 개념인 kāraka는 격어미를 통해 구체화 된다는 점에서 격의 의미론적 이해를 위한 kāraka 분석은 중요하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7042645).

\*\* 金栖利 : 동국대학교(경주) 외래강사. seo-ri@hanmail.net

## I. 들어가는 말

빠알리어 문장에서의 격의 중요성은 불변화사와 동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에 격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대명사, 수사, 그리고 형용사적 분사에도 격과 수에 따라 어미변화가 있다. 마치 빠알리어 문장이라는 무대에서 하나의 어기(語基)<sup>1)</sup>가 문장 속 역할에 맞는 격어미 의상을 입고 문장의 요소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것과 같다. 우리는 격어미를 통해 해당 단어의 역할과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 빠알리어 문장을 이루는 문장 요소들의 일반적인 역할들을 안다면 빠알리어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여기서 ‘문장을 이루는 문장 요소들의 일반적인 역할’ 즉, ‘문장 속 행위에 대한 명사의 관계’가 바로 kāraka이다.

국내에 소개된 여덟 가지 격은 일반적으로 주격(主格), 대격(對格), 구격(具格), 위격(爲格), 종격(從格), 속격(屬格), 처격(處格), 호격(呼格)으로 분류되어 있고, 한 격에 해당하는 어미의 그룹과 용법을 한데 묶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명칭들로 인하여 자칫 각각의 격이 가진 용법을 한정짓기 쉬워 주격은 ‘-은, -는’으로, 대격은 ‘-을, -를’로 번역하는 학습으로 유도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대격어미가 붙은 단어가 항상 ‘-을, -를’로 번역되는 목적어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 격이 가지는 다양한 번역어를 확장해서 보는 것 보다는, 본고에서는 애초에 격이

1) 『갓짜야나 문법』 432(dhātu-liṅgehi parā paccayā)에 따르면, 어미는 동사의 기초가 되는 어근(dhātu)과 명사의 기초가 되는 어기(liṅga)에 붙는다. 여기서 어기(liṅga, 語基)는 ‘격어미가 붙기 전의 형태’를 말한다.

드러내고자 했던 문장 구성 요소의 역할을 연구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문장 속 행위에 대한 명사의 관계인 kāraka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빠알리어에서 격의 의미론적 이해를 위한 kāraka 분석의 중요성을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빠알리어 전통문법서를 바탕으로 kāraka와 격어미를 명확히 분리하고 그 양자 간의 상호관계를 밝힌다. 둘째, 6종의 kāraka와 sāmi 각각의 정의와 유형을 분석하여 이들이 가진 적용범위를 명확히 제시한다. 상기의 연구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기호와 같은 격어미는 kāraka를 통해 의미가 발현되고, 추상적인 개념인 kāraka는 격어미를 통해 문장에서 구체화 된다는, 격과 kāraka의 상호관계의 특성을 의미론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본 연구를 위해 『갓짜야나 문법』(*Kaccāyana-vyākaraṇa*: 이하 KV)과 『삿다니띠』(*Saddanīti*: 이하 Sadd)에서 ‘kāraka’와 ‘kāraka’에 대한 격의 배정에 관련된 문법규칙을 번역하고 분석하였다.<sup>2)</sup>

본고를 구성할 때 격 소개와 격의 배정, 그리고 kāraka의 분석 순으로 전개하지 않고, kāraka의 분석내용을 먼저 제시한 후 kāraka에 대한 격의 배정을 뒤에 제시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에 서이다. 첫째, 빠알리어 문법은 주격, 대격, 구격 등 특정 격에 해당하는 어미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분리되어 있는 격어미와 kāraka가 배정에 의해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이다. 둘째, 본고의 취지에 맞는 전개뿐만 아니라, 빠알

2) KV와 Sadd는 대표적인 빠알리어 전통문법서로서, KV는 7-8세기에 갓짜야나(Kaccāyana)에 의해 저술되었다고 추정하고, Sadd는 미얀마의 파간 왕조 시대인 1154년에 악가왓사(Aggavaṃsa)에 의해 저술되었다고 한다. Pind(1989) p. 33, Bode(1909) p. 16, Kahrs(1992) p. 2 참조. KV의 저자와 저술 시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Malai(1997) pp. 35-40, Deokar(2002) pp. 8-10 참조.

리어 문장 파악에 있어서도 kāraka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빠알리어 문장을 접할 때 단어의 격어미를 통해 kāraka를 파악하고 나아가 문맥을 파악하게 되는데, 각 kāraka의 적용범위가 넓다보니 kāraka 분석을 통한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쉽게 예를 들어 말하자면, “대격어미= ‘을(를)’로 번역되는 목적어 어미”가 아니라, “2격어미= ‘을(를)’로 번역되는 목적어를 포함한 다양한 용법이 있는 어미”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그 다양한 용법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문장 속 행위에 대한 명사의 관계’인 kāraka의 분석을 먼저 제시한 것이다.

## II. kāraka의 분석

빠알리어 전통문법가들은 kāraka를 kattu, kamma, karaṇa, sampadāna, apādāna, 그리고 okāsa 이렇게 6종으로 분류하고, 6종 kāraka에 이어 sāmi도 언급한다. 현대적 표현으로 속격의 용법과 같은 sāmi는 동사가 아닌 명사와의 관계에 있으므로 엄밀히 말해 kāraka가 아니다. 그러나 문장 내에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전통문법서의 문법규칙 순서에 맞게 본고도 sāmi를 kāraka와 함께 언급하겠다.

이 장은 kāraka의 분석으로서, 6종 kāraka 및 sāmi의 정의와 유형이 제시된 문법 규칙을 번역하여 각 kāraka의 적용범위를 살펴볼 것이다. Sadd는 각 kāraka의 유형을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kāraka가 가진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접근하게 해준다. kāraka가 문장 내 거의 모든 명사와 동사를 묶는 하

나의 중요한 관계이듯, 각 kāraka의 적용범위도 넓어 그 쓰임이 구체적이다. 우선 KV와 Sadd에서 제시하는 kāraka의 정의를 살펴본 후, kattu-kāraka부터 그 정의와 유형을 살펴보겠다.<sup>3)</sup>

## 1. kāraka의 정의

Sadd 547<sup>4)</sup>은 kāraka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sup>5)</sup>

kāraka는 행위[를 이루는] 요소이다.<sup>6)</sup> 본래 ‘구현’하는 수단이면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행위를 이루는 요소를 kāraka라고 칭한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것은 행위를 만들기 때문에 kāraka라고 한다.<sup>7)</sup>

여기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mukhyavasena vā up-

- 
- 3) KV의 kāraka 문법규칙은 apādāna, sampadāna, okāsa, karaṇa, kamma, kattu, sāmi(종격, 위격, 처격, 구격, 대격, 주격, 속격에 해당)순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본고는 Sadd의 kāraka 문법규칙 순서인 kattu, kamma, karaṇa, sampadāna, apādāna, okāsa, sāmi(주격, 대격, 구격, 위격, 종격, 처격, 속격에 해당)순으로 전개한다.
- 4) Sadd 547은 샷다니띠의 문법규칙 547번을 나타낸다. 본고의 본문 및 각주에 표기된 문법규칙의 인용표시는 문법서의 약호와 문법규칙의 번호를 제시한 것이다.
- 5) KV의 kāraka절에는 kāraka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하고 있는 문법규칙이 없다.
- 6) nimitta를 Collins는 element 즉, 요소라고 해석하여 “kāraka는 행위의 요소(element)”라고 번역하고 있다. 반면, Deokar는 cause 즉, 원인이라고 해석하여 “kāraka는 행위의 원인(cause)”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Collins(2006) p. 42, Deokar(2002) p. 267 참조.
- 7) Sadd 547: kiriyānimittam kārakaṃ. yaṃ sādhanasabhāvattā mukhyavasena vā upacāravasena vā kiriyābhiniṣṭhāyā nimittam, taṃ vatthu kārakaṃ nāma bhavati: mukhyopacāravasena hi kiriyam karotī ti kārakaṃ.

acāravasena vā)’이라는 말에 대해 Deokar는 “kāraka가 행위를 만들기 때문에 kāraka라고 한다(kiriyam karoti ti kārakam)’라는 말이 자칫 행위자만이 kāraka로 합당하다고 보고 문장 내 다른 요소들은 kāraka로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므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이라는 말을 부연한 것”이라고 설명한다.<sup>8)</sup>

Sadd 547은 앞 내용에 이어서 kāraka를 kattu, kamma, karaṇa, sampadāna, āpādāna, okāsā, 이렇게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kāraka는 행위와의 관계를 나타낸다.”<sup>9)</sup>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 2. kattu-kāraka의 정의와 유형

### 1) kattu-kāraka의 정의

KV 281은 kattu에 대한 정의와 그에 대한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행하는 자는 kattu이다. 행하는 자는 kattu로 칭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사람이 뱀에 물렸다.’, ‘코브라가 garuḷa(신비의 새)에 의해 죽었다.’, ‘악마가 붓다에 의해서 정복되었다.’ ‘악마가 upagutta에게 묶였다.’ kattu에 대해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규칙 “kattari ca”에 있는 kattu의 쓰임 때문이다.<sup>10)</sup>

‘kattu에 대해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규칙 “kattari ca”에 있

8) Deokar(2002) p. 267 참조.

9) Sadd 547: kiriyābhisambandhalakkhaṇam kārakam.

10) KV 281: yo karoti sa kattā. yo karoti, so kattusañño hoti. ahinā daṭṭho naro, garuḷena hato nāgo. Buddhena jito māro, upaguttena māro baddho. kattuiccanena kvattho? kattari ca.

는 kattu의 쓰임 때문이다.’에서 “kattari ca”는 KV 문법규칙 288이다. 각 kāraka의 정의와 용법을 설명하는 규칙에서 해당 kāraka의 설명 목적을 묻는 질문이 나오고 그에 대한 답으로는 뒤에 나올 한 규칙에 있는 해당 kāraka의 쓰임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뒤에 나올 한 규칙’이란 kāraka 관련 규칙들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규칙들 중 하나로서, 격의 쓰임에 관한 규칙이자 해당 kāraka에 격어미가 배정됨을 보여주는 규칙이다.

Sadd 548은 kattu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행위를] 행하는 자 또는 태어나는 자는 kattu이다. [행위에서] 가장 주가 되면서, 가거나 요리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행하는 자, 또는 태어나는 자, 그 kāraka는 kattu라고 칭한다. (… kattu-kāraka는 [무언가를] 생겨나게 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kattu에 대해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규칙 “kattari paṭhamā tatiyā ca”에 있는 kattu의 쓰임 때문이다.<sup>11)</sup>

kattu에 대한 Sadd의 문법규칙에는 KV에 없는 구절인 ‘태어나는 자(yo vā jāyati)’가 덧붙여져 있다. 그 어떤 것이든 태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존재도 없는데, 대체 태어나는 행위의 주체는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 Deokar는 Bhartṛhari의 산스크리트 문법서 Vākya의 문법규칙 내용인 “어떤 것이 태어나기/생기기 전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는 자의 의지에 따라 그것은 존재하는 다른 어떤 것들과도 다름없이 태어나는 그 행위의 주체가 된다.”로 부연하고 있다.<sup>12)</sup> 다시 말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도 말을 할 때는 문법적

11) Sadd 548: yo kurute yo vā jāyati, so kattā. yo attappadhāno hutvā gamana-pacanādikaṃ kiriyam kurute yo vā jāyati, so kārako kattā nāma bhavati. (… abhinippādanalakṣaṇam kattukārakaṃ. kattā icc anena kv attho: "kattari paṭhamā tatiyā ca."

으로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kattu에 대한 상기의 정의에 이어서 Sadd는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대상에 대해서도 kattu의 범주로 포함시키는 문법규칙을 제시한다.

실재하지 않는 것을 실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kattu이다.] 실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또한 kattu로 칭한다.<sup>13)</sup>

실재하지 않는 것을 실재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Sadd 549에 나온 예시 “토끼의 뿔이 돋는다(sasavisāṇaṃ tiṭṭhati)”, “우담바라 꽃이 핀다(udumbarapupphaṃ vikaṣati)”, “불임여인의 아들이 달린다(vañjhāputto dhāvati)”처럼 실재하지 않는 상상의 대상에 대한 것이다. 비록 이 대상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말을 할 때 문법적으로 행위자의 역할을 한다.

## 2) kattu의 유형

Sadd 548는 kattu를 순수 행위자(suddhakattu), 원인/사역 행위자(hetukattu), 대상 행위자(kammakattu),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본고에 제시되는 인용문의 괄호문자(1), (2), (3) 등)와 원문자(①, ②, ③ 등)는 편의상 임의로 부여한 것이다.

(1) 행위를 스스로 행하는 자를 ‘순수 행위자(suddhakattu)’라고 칭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사람이 길을 간다.’, ‘요리사가 밥을 짓는다.’, ‘아이가 태어난다.’, ‘악마가 붓다에 의해 정복되었

12) Deokar(2002) p. 295 참조.

13) Sadd 549: asantaṃ santaṃ va kappiyati, tañ ca. yaṃ asantaṃ santaṃ viya buddhiyā parikkappiyati, tañ ca kattusaññaṃ bhavati.



다.', '악마가 upagutta에게 묶였다.' (2)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을 하도록 하는 자를 '원인/사역 행위자(hetukattu)'라고 칭한다. '[누군가에 의해 어떤 다른 사람이 (무엇을)] 보낸다.', '[누군가에 의해 어떤 다른 사람이] 간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것이] 진행된다.'와 같은 다른 사람의 행위의 원인이 되는 자가 원인(hetu)이다. 그는 원인이면서 행위자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사역 행위자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야야다따가 데와다따를 가게 한다.' (3) 누군가의 (또는 무언가의) 행위로 인해 어떤 대상(kamma)이 저절로 [그 행위를] 쉽게 이룬 것처럼 보일 때 그 대상은 '대상 행위자(kammakattu)'라고 칭한다. 그는 대상이면서 행위자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대상 행위자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매트가 저절로 만들어진다.', '밥이 저절로 지어진다.'<sup>14)</sup>

Sadd 550에도 사역 행위자의 정의가 제시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자 또는 야기하는 자, 그것은 사역 행위자(hetukattu)이다.<sup>15)</sup>

KV 282는 사역 행위자에 대한 정의와 그에 대한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4) Sadd 548: Sadd 548: yo sayam eva kiriyam karoti, so suddhakattā nāma, tam yathā: puriso maggam gacchati, sūdo bhattam pacati, putto jāyati, buddhena jito Māro, Upaguttena Māro baddho. yo aññam kammani yojeti, so hetukattā nāma, so hi parassa kiriyāya kāraṇabhāvena hinoti gacchati pavattatī ti hetu, hetu ca so kattā cā ti atthena hutukattā: Yaññatto Devadattam gamayati. yo pana parassa kiriyam paṭicca kammabhūto pi sukarattā sayam eva sijjhanto viya hoti, so kammakattā nāma, kammañ ca tam kattā cā ti atthena: sayam eva kaṭo kariyati, sayam eva paciṇyati odano ti.

15) Sadd 550: yo kāreti yo vā u[pa]ṭṭhāpayati, so hetu.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자는 원인이다. 행위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자, 그는 행위자(kattu)이면서 원인(hetu)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한 남자가 다른 남자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한다.’(…) hāreti(가져오게 한다), pāṭheti(읽게 한다), pāceti(오리하게 한다), dhāreti(계속하게 한다)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 (…)<sup>16)</sup>

### 3. kamma-kāra의 정의와 유형

#### 1) kamma-kāra의 정의

KV 280은 kamma에 대한 정의와 그에 대한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행위의 대상이 kamma이다. 행하는 대상, 보는 대상, 또는 듣는 대상, 그 kāra는 kamma라고 칭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양산을 만든다.’, ‘마차를 만든다.’, ‘형상을 본다.’, ‘소리를 듣는다.’, ‘가시를 짓밟는다.’, ‘독을 삼킨다.’ kamma에 대해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규칙 “kammatthe dutiyā”에 있는 kamma의 쓰임 때문이다.<sup>17)</sup>

Sadd 551은 kamma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행하는 대상 또는 보는 대상이 kamma이다. 그것이 행해지고 행위를 통해 도달한 것이 kamma이다. kamma-kāra는 행위를 통해 [무

16) KV 282: yo kāreti sa hetu. yo kattāraṃ kāreti, so hetusañño hoti, kattā ca. so puriso taṃ purisaṃ kammaṃ kāreti; so puriso tena purisena kammaṃ kāreti; so puriso tassa purisassa kammaṃ kāreti. evaṃ hāreti, pāṭheti, pāceti, dhāreti.(…)

17) KV 280: yaṃ karoti taṃ kammaṃ. yaṃ vā karoti, yaṃ vā passati, yaṃ vā suṇāti, taṃ kāraṃ kammañaṃ hoti. chattaṃ karoti, rathaṃ karoti, rūpaṃ passati, saddaṃ suṇāti, kaṇṭakaṃ maddati, viṣaṃ gilati. kammamiccanena kvattho? kammatthe dutiyā.

엇에] 도달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sup>18)</sup>

## 2) kamma의 유형

Sadd 551은 kamma의 유형을 두 가지의 분류법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분류법은 kamma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고, 두 번째 분류법은 7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본고가 다룰 유형은 3가지 유형인 생겨나는 것(nibbattaniya), 변화하는 것(vikaraṇiya), 그리고 도달하는 것(pāpaṇiya)이다.

(1) ‘마차를 만든다.’, ‘행복을 생기게 한다.’, ‘아이를 낳는다.’, ‘가지지 않은 것을 바란다.’ [앞의 예와 같은] 이러한 것을 ‘생겨나는 것(nibbattaniya)’이라고 칭한다. (2) ‘목재를 숲으로 만든다.’, ‘금을 팔찌나 반지로 만든다.’, ‘벼를 벤다.’ [앞의 예와 같은] 이러한 것을 ‘변화하는 것(vikaraṇiya)’이라고 칭한다. 이것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물질적인] 원인이 다 버려진 것과 [물질적인] 원인이 다 버려지지 않은 것이다. ① [물질적인] 원인이 파괴되면서 생겨나는 것을 [물질적인] 원인이 다 버려진 것(pariccattakāraṇa)이라고 칭한다. ② 다른 성질의 것이 생겨나면서, 통용되는 표현이 없어지고 [물질적인] 원인이 그 대상에 여전히 존재할 때 [그 대상을 물질적인] 원인이 다 버려지지 않은 것(apariccattakāraṇa)이라고 칭한다.<sup>19)</sup> (3) ‘집에 들어간다.’, ‘태양을 숭배한다.’, ‘형상을 본다.’, ‘법을 듣는다.’, ‘지혜로운 이를 모신다.’, ‘마음속으로 빠딸리뿌따에 간다.’ [앞의 예와 같은] 이러한 것을 ‘도달하는 것(pāpaṇiya)’이라고 칭한다. ‘집에 들어간다.’와 같은 [문장들에 는 행위가] 달성된 것 이외에 어떠한 특별한 것도 집 등의 행위에 의해서 된 것은 없다. ① ‘밥을 먹는다.’와 같은 [문장들에] 밥 등은 바라던 대상(icchitakamma)이라고 칭한다. ② ‘독을 삼킨다.’와 같은 [문장

18) Sadd 551: yaṃ kurute yaṃ vā passati, taṃ kammaṃ. kariyate taṃ kiriyaṃ paṇiṇiyate ti kammaṃ. kiriyaṃpattilakkhaṇaṃ kammakāraṇaṃ.

19) ‘물질적 원인이 다 버려진 것’은 ‘목재를 숲으로 만든다.’의 숲과 같으며, ‘물질적 원인이 다 버려지지 않은 것’은 ‘금을 팔찌나 반지로 만든다.’의 팔찌 및 반지와 같다.

들에] 독 등은 바라지 않는 대상(anicchitakamma)이라고 칭한다. ③ ‘마을에 가다가 나무뿌리에 다다른다.’와 같은 [문장들에] 나무뿌리 등은 바라던 대상도 바라지 않던 대상도 아닌 대상(nevicchitanānicchitakamma)이라고 칭한다.<sup>20)</sup>

#### 4. karaṇa-kāraṇa의 정의와 유형

##### 1) karaṇa-kāraṇa의 정의

KV 279는 karaṇa에 대한 정의와 그에 대한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행위의 수단이 karaṇa이다. 행하는 수단, 보는 수단, 듣는 수단, 그 kāraṇa는 karaṇa라고 칭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낮으로 버를 본다.’, ‘까끼로 목재를 깎는다.’, ‘도끼로 나무를 베다.’, ‘삽으로 땅을 판다.’, ‘칼로 일을 한다.’ ‘눈으로 형상을 본다.’, ‘귀로 소리를 듣는다.’ karaṇa에 대해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규칙 “karaṇe tatiyā”에 있는 karaṇa의 쓰임 때문이다.<sup>21)</sup>

20) Sadd 551: rathaṃ karoti, sukhaṃ janayati, puttaṃ vijāyati, aladdhaṃ pattheti ti idaṃ nibbattaṇīyaṃ nāma. kaṭṭhaṃ aṅgāraṃ karoti, suvaṇṇaṃ keyūraṃ kaṭakaṃ vā karoti, vihayo lunāti idaṃ vikaraṇīyaṃ nāma – taṃ duvidhaṃ: pariccattakāraṇaṃ apariccattakāraṇaṃ ti, tattha pariccattakāraṇaṃ nāma, yaṃ kāraṇassa vināseṇa sambhūtaṃ, apariccattakāraṇaṃ nāma, yattha kāraṇabhūte vatthumhi vijjamaṇe yeva guṇantarupattiyā vohārabhedo dissati. nivesanaṃ pavisati, ādiccaṃ namassati, rūpaṃ passati, dhammaṃ suṇāti, paṇḍite payirupāsati, manasā Pāṭaliputtaṃ gacchati idaṃ pāpaṇīyaṃ nāma, tathā hi nivesanaṃ pavisati ti ādisu nivesanādīnaṃ kiriyāya na koci viseso karīyati aññatra sampattimattā; bhattaṃ bhujjati icc ādisu bhattādi icchitakammaṃ nāma, visaṃ gilati icc ādisu visaṃ anicchitakammaṃ nāma, gāmaṃ gacchanta rukkhamaṇā upasaṃkamati icc ādisu rukkhamaṇādi nevicchitanānicchitakammaṃ nāma.

21) KV 279: yena vā kayirate taṃ karaṇaṃ. yena vā kayirate, yena vā

Sadd 552는 karaṇa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행하는 수단 또는 보는 수단이 karaṇa이다. 행위는 행위자의 수단이 된 이것으로 행해지고 발생되는데, 이것이 karaṇa이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kāraka가 행위를 완성할지라도 '~의 수단'이라고 명시한 것은 행위자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이해를 위한 것이다. karaṇa-kāraka는 행위의 수단으로서의 특징이 있다.<sup>22)</sup>

## 2) karaṇa의 유형

Sadd 552는 karaṇa를 내부적인 것(ajjhattika)과 외부적인 것(bāhira)으로 구분한다.

(1) [내부적 karaṇa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눈으로 형상을 본다.', '귀로 소리를 듣는다.', '마음으로 법을 이해한다.' (2) [외부적 karaṇa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손으로 일을 한다.', '도끼로 나무를 베다.'<sup>23)</sup>

---

passati, yena vā suṇāti, taṃ kārakaṃ karaṇasaññaṃ hoti. dattena vihiṃ lunāti, vāsiyā kaṭṭhaṃ tacchati, pharasunā rukkhāṃ chindati, kudālena pathaviṃ khaṇati, satthena kammaṃ karoti. cakkhunā rūpaṃ passati. karaṇamiccanena kvattho? karaṇe tatiyā.

22) Sadd 552: yena kurute yena vā passati, taṃ pi karaṇaṃ. kariyati kiriyāṃ janeti anena kattuno upakaraṇabhūtena vatthunā ti karaṇaṃ. ettha ca, sati pi sabbakāraṇānaṃ kiriyāsādhakatte, "yena kurute" ti ādi visesetvā-vacanaṃ kattūpakaraṇabhūtesu sādhanesu sādhakatamass' eva gahaṇatthaṃ. kiriyāsāmbhāralakkhaṇaṃ karaṇakāraṇaṃ.

23) cakkhunā rūpaṃ passati, sotena saddaṃ suṇāti... manasā dhammaṃ vijānāti; hatthena kammaṃ karoti, pharasunā rukkhāṃ chindati,

## 5. sampadāna-kāraka의 정의와 유형

### 1) sampadāna-kāraka의 정의

KV 276은 sampadāna에 대한 정의와 그에 대한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주고자 할 때의 대상, [어떤 것에] 기뻐하는 대상, [양산 등을] 누군가를 위해 받쳐 들 때의 그 대상이 sampadāna이다. 주고자 할 때의 대상, [어떤 것에] 기뻐하는 대상, [무언가를] 누군가를 위해 잡을 때의 그 대상, 그 kāraka는 sampadāna라고 칭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수행자에게 법의(法衣)를 베풀기를 원한다.’, ‘진리가 사문을 기쁘게 한다.’, ‘야야다따가 데와다따를 위해 금으로 된 양산을 받쳐 든다.’ sampadāna에 대해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규칙 “sampadāne catutthī”에 있는 sampadāna의 쓰임 때문이다. (…)<sup>24)</sup>

Sadd 553은 sampadāna에 대한 정의와 그에 대한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주고자 할 때의 대상, [어떤 것에] 기뻐하는 대상이 sampadāna이다. 주고자 할 때의 대상, [어떤 것에] 기뻐하는 대상, [어떤 것이] 잘 맞는 그 대상, [양산 등을] 누군가를 위해 받쳐 들 때의 그 대상, 그 kāraka는 sampadāna라고 칭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수행자에게 공양 베풀기를 원한다.’, ‘수행자에게 법의를 베풀다.’, ‘음식이 그 남자를 기쁘게 한다.’, (…) ‘그에게 예를 갖추어 베풀다.’에서 받는 사람이 sampadāna이다. sampadāna-kāraka는 받는 것이 그 특징이다.<sup>25)</sup>

24) KV 276: yassa dātukāmo rocate dhārayate vā taṃ sampadānaṃ. yassa vā dātukāmo yassa vārocate, yassa vā dhārayate, taṃ kārakaṃ sampadānasaññaṃ hoti. samaṇassa cīvaraṃ dadāti, samaṇassa rocate saccam, devadattassa suvaṇṇacchattam dhārayate yaññadatto. sampadānamiccanena kvattho? sampadāne catutthī. (…)

## 2) sampadāna의 유형

Sadd 553은 sampadāna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sampadāna는 세 가지 유형으로서, (1) [받는 대상이 받는 것을] 거절하지 않음(anirākaraṇa), (2) 요청함(ajjhesanā), (3) 승낙함(anumati)이다. (1) ‘부처님께 꽃을 올린다.’ 또는 ‘나무에 물을 준다.’와 같이 주어진 것을 거절하지 않음으로써, (2) ‘거지들에게 음식을 준다.’와 같이 [받는 대상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3) ‘나라야나에게 공물을 바친다.’ 또는 ‘스님께 공양물을 드린다.’와 같이 [받는 대상이 받는 것을] 승낙함으로써 [받는 대상이] sampadāna라는 명칭을 갖는다.<sup>26)</sup>

## 6. apādāna-kāraka의 정의와 유형

### 1) apādāna-kāraka의 정의

KV 271은 apādāna에 대한 정의와 그에 대한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무엇에서] 떠나가는 것, [무엇에서 생기는] 두려움, 또는 [무엇으로부터] 받는 것이 apādāna이다. [무엇에서] 떠나가는 것, [무엇에서] 생기는 두려움, 또는 [무엇으로부터] 받는 것, 그 kāraka는 apādāna라고

- 
- 25) Sadd 553: yassa dātukāmo yassa vā ruccati, taṃ sampadānaṃ. yassa vādātukāmo yassa vā ruccati yassa vā khamati yassa vā dhārayate, taṃ kārakaṃ sampadānasaññaṃ hoti: samaṇassa dānaṃ dātukāmo, samaṇassa cīvaraṃ dadāti, tassa purisassa bhattaṃ ruccati, (…)  
sammā pakārena assa dadāti ti sampadānaṃ paṭiggāhako.  
paṭiggahaṇalakkhaṇaṃ sampadānakārakaṃ.
- 26) Sadd 553: kiñci dīyamānassa anirākaraṇena sampadānasaññaṃ labhati yathā: buddhassa pupphaṃ dadāti, rukkhassa jalaṃ dadāti ti, kiñci ajjhesanena: yācakānaṃ bhojanaṃ dadāti ti, kiñci anumatiyā:  
Nārāyanassa baliṃ dadāti, bhikkhussa bhattaṃ dadāti ti.

칭한다. 그 예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성자는 마을에서 떠나간다.’, ‘왕은 도시에서 나갔다.’, ‘강도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학생은 스승과 훈계자로부터 혼련을 받는다.’ apādāna에 대해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규칙 “apādāne pañcamī”에 있는 apādāna의 쓰임 때문이다.<sup>27)</sup>

Sadd 555는 apādāna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무엇에서] 떠나가는 것 또는 [어디에서] 오는 것, 그 kāraka는 apādāna라고 칭한다. 여기서 떠난 후에 [무언가를] 취하는 것이 apādāna이다.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떤 것을 떠나서 무언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8)</sup>

## 2) apādāna의 유형

Sadd 555는 apādāna의 유형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한다.

apādāna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 이전 신체적 결합에서 떠남(kāyasaṃyogapubbaka), (2) 이전 정신적 결합에서 떠남(cittasaṃyogapubbaka); [위와] 마찬가지로 [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 움직이는 지점(calāvadhi), (2) 움직이지 않는 지점(niccalāvadhi). 한편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1) 움직이는 지점(calāvadhi), (2) 움직이지 않는 지점(niccalāvadhi), (3) 움직이는 지점도 움직이지 않는 지점도 아닌 것(nevacalāvadhina-

27) KV 271: yasmāpeti bhayamādatte vā tadapādānaṃ. yasmā vā apeti, yasmā vā bhayaṃ jāyate, yasmā vā ādatte, taṃ kārakaṃ apādānasaññaṃ hoti. taṃ yathā? gāmā apenti munayo, nagarā niggato rājā, corā bhayaṃ jāyate, ācariyupajjhāyehi sikkhaṃ gaṇhāti sisso. apādānamiccanena kvattho? apādāne pañcamī.

28) Sadd 555: yato apeti yato vā āgacchati, tad apādānaṃ. yato vā apeti yato vā āgacchati, taṃ kārakaṃ apādānasaññaṃ hoti; apecca ito ādadatī ti apādānaṃ, ito vatthuto kāyavasena cittavasena vā apagantvā aññaṃ gaṇhātī ti attho.



niccalāvadhi); [위와] 마찬가지로 [또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 영역이 표현됨(niddiṭṭhavisaya), (2) 영역이 퍼져 있음(uppattavisaya), (3) 영역이 승인되어져야함(anumeyyavisaya).<sup>29)</sup>

Sadd 571은 상기의 apādāna의 유형을 예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성자는 마을에서 떠나간다.’와 같은 문장들에서는 이전에 신체적 결합이 있기 때문에 마을 등에서 떠나가는 것은 ‘이전 신체적 결합에서 떠남 apādāna’라고 불린다. (2) ‘살생을 그만둔다.’와 같은 문장들에서는 이전에 정신적 결합이 있기 때문에 살생 등에서 떠나가는 것은 ‘이전 정신적 결합에서 떠남 apādāna’라고 불린다. (1) 또한, ‘달리는 코끼리에서 코끼리를 부리는 자가 떨어졌다.’와 같은 문장들에서는 움직이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코끼리 등에서 떠나가는 것은 ‘움직이는 지점 apādāna’라고 불린다. (2) ‘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산을 내려온다.’와 같은 문장들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산 등에서 떠나가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지점 apādāna’라고 불린다. (3) 이 두 가지 형식에서 벗어나 ‘부처님을 대신하여 사리뿌따가 [가르쳤다.]’와 ‘욕망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와 같은 문장들에서 부처님은 지점으로 이해될 수 없으므로, 부처님 등에서 떠나가는 것은 ‘움직이는 지점도 움직이지 않는 지점도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이 apādāna는 두 가지 유형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sup>30)</sup>

29) Sadd 555: taṃ pana apādānaṃ duvidhaṃ

kāyasaṃyogapubbaka-cittasaṃyogapubbakāpagamavasena, tathā calāvadhi-niccalāvadhivasena; atha vā pana tividhaṃ calāvadhi-niccalāvadhi-nevacalāvadhiniccālāvadhivasena, tathā niddiṭṭhavisaya-uppattavisaya-anumeyyavisayavasena.

30) Sadd 571: gāmā apenti munayo ti ādisu hi kāyasaññogapubbakassa apagamanassa vijjamānattā gāmādi apādānaṃ kāyasaññogapubbakamāna, pāṇātipātā viramatī ti ādisu pana cittasaññogapubbakassa apagamanassa vijjamānattā pāṇātipātādi apādānaṃ cittasaññogapubbakamāna; tathā dhāvata hatthimhā patito amkusaggaho ti ādisu hatthiadi apādānaṃ calamariyādashūtattā

‘영역이 표현됨’을 시작으로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1) ‘마을에서 떠나간다.’와 같은 문장들은 행위의 특성에 의해 apādāna 영역이 표현되기 때문에 ‘영역이 표현됨’이라고 한다. (2) ‘곡물창고에서 요리한다.’, ‘아비담마에 대해 말한다.’, ‘구름에서 [번개가] 번쩍인다.’에서는 ‘영역이 퍼져 있음’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번개가 구름으로부터 나온다.’와 같은 문장들은 행위의 특성에 의해 [apādāna 영역이] 파악되기 때문이다. (3) ‘마두라가 빠딸리뿌따보다 더 아름답다.’에서는 ‘영역이 승인되어져야함’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마두라가 어떤 점에서는 빠딸리뿌따보다 더 칭송받는다.’와 같은 문장은 행위의 특성에 의해 [apādāna의 영역이] 승인되어지기 때문이다.<sup>31)</sup>

## 7. okāsa-kāraka의 정의와 유형

### 1) okāsa-kāraka의 정의

KV 278은 okāsa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놓여 있는 것이 okāsa이다. 놓여 있는 것, 그 [kāraka는] okāsa라고 칭한다. (...) okāsa에 대해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규칙 “okāse sat-

---

calāvadhi nāma, calañ ca taṃ avadhi cā ti atthēna, pabbatā otaranti vanacarā ti ādisu pabbatādi apādānaṃ niccalamariyādhūtattā niccalāvadhi nāma, niccalañ ca taṃ avadhi cā ti atthēna, imehi dvīhi pakārehi vinimmuttaṃ buddhasmā pati Sāriputto, kāmato jāyate bhayan ti ca ādisu buddhādi apādānaṃ n'eva calāvadhi na niccalāvadhi nāma, avadhibhāvena agahetabbattā – evaṃ apādānaṃ duvidhaṃ tividhañ ca bhavati.

- 31) Sadd 571: puna taṃ tividhañ ca, niddiṭṭhavisayādivasena; tattha gāmā apagacchati ti ādi niddiṭṭhavisayaṃ nāma, apādānavisayassa kiriyāvisesassa niddiṭṭhattā; kusūlato pacati, abhidhammā kathayati, valāhakā vijjotati ti upattavisayaṃ nāma, valāhakā niggamma vijjotati ti ādinā upādeyyo ettha kiriyāviseso; Mādhurā Pāṭaliputtakehi abhirūpatarā ti anumeyyavisayaṃ nāma, Mādhurā Pāṭaliputtakehi ukkaṃsiyanti kenaci guṇenā ti anumeyyo ettha kiriyāviseso.

tamī”에 있는 okāsa의 쓰임 때문이다.<sup>32)</sup>

Sadd 572는 okāsa에 대한 정의와 그에 대한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놓여 있는 것이 okāsa이다. kattu와 kamma에 부여되는 ‘앉는 행위’ 또는 ‘요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받침대라는 의미로서의 놓여 있는 것, 그 kāraka는 okāsa라고 칭한다. (...) ‘데와다따가 매트에 앉는다.’에서 데와다따를 받치고 있는 매트는 그(데와다따)에게 부여되는 앉는 행위를 받치고 있다. ‘그는 냄비에 밥을 짓는다.’에서도 밥을 받치고 있는 냄비는 그것(밥)에 부여되는 요리하는 행위를 받치고 있다.<sup>33)</sup> (...) okāsa-kāraka는 놓여있음(또는 받치고 있음)이 그 특징이다.<sup>34)</sup>

## 2) okāsa의 유형

KV와 Sadd는 okāsa를 (1) 스머늬(vyāpika), (2) 근접(opasilesika), (3) 근처(sāmīpika), (4) 영역에 속함(vesayika),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KV 278은 위의 네 가지 okāsa에 대한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okāsa는 네 가지 유형으로서, (1) 스머늬(vyāpika), (2) 근접(opasilesika), (3) 영역에 속함(vesayika), (4) 근처(sāmīpika)이다. (1) 스머늬(vyāpika)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우유는 물속에 있다.’, ‘참깨 씨 속

32) KV 278: yodhāro tamokāsaṃ. yo ādhāro, taṃ okāsasaññaṃ hoti. (...) okāsamiccānena kvattho? okāse sattamī.

33) Sadd 572: yo ādhāro taṃ okāsaṃ. yo kattu-kammasamavetaṇaṃ nisajjapacānādikiriyaṇaṃ ādhāraṭṭhena ādhāro, taṃ kārakaṃ okāsasaññaṃ hoti. (...) tathā hi kaṭṭe nisīdati Devadatto ti ettha kaṭṭo Devadattaṃ dhārento taṃsamavetaṃ āsanakiriyaṃ dhāreti, thāliyaṃ odanaṃ pacatī ti ettha thālī taṇḍulaṃ dhārentī taṃsamavetaṃ pi pacanakiriyaṃ dhāreti.

34) Sadd 573: ādhāraṇalakkhaṇaṃ okāsakārakaṃ.

의 참기름’, ‘사탕수수 속의 주스’ (2) 근접(*opasilesika*)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왕은 침상에 눕는다.’, ‘승가는 자리에 앉는다.’ (3) 영역에 속함(*vesayika*)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인간은 땅 위를 걷는다.’, ‘바람은 하늘에서 분다.’, ‘새들이 공중을 날아오른다.’ (4) 근처(*sāmīpika*)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코끼리들은 숲 주변을 거닌다.’, ‘소 우리에서 우유를 짜다.’, ‘제따 숲 속 사왓티에 산다.’<sup>35)</sup>

Sadd 572는 위의 네 가지 *okāsa*에 대한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okāsa*는 네 가지 유형으로서, (1) 스며들(*vyāpika*), (2) 근접(*opasilesika*), (3) 근처(*sāmīpika*), (4) 영역에 속함(*vesayika*)이다. (1) ‘참깨 씨 속의 참기름’, ‘사탕수수 속의 주스’, ‘응유(凝乳) 속의 버터기름’과 같이 [그 속에] 속해 있는 것이 받치고 있는 전체에 스며들어 있을 때 [그 전체를 일컬어] ‘스며들’이라고 한다. (2) ‘매트 위에 앉는다.’와 같이 제각기 따로 있는 것들이 가까이 닿을 경우에 ‘근접’이라고 한다. (3) ‘사왓티에 산다.’, ‘갠지스 강 위에 소 우리가 있다.’와 같이 근처의 한 지점에 있는 존재가 [사왓티나 갠지스 강처럼] 근처에 대한 표현으로 구별될 때 ‘근처’라고 한다. (...) (4) ‘인간은 땅에 살고 물고기는 바다에 살며 새는 하늘에 산다.’와 같이 존재의 다른 상태에 따른 각각의 장소가 정해질 때 ‘영역에 속함’이라고 한다.<sup>36)</sup>

- 35) KV 278: *svādhāro catubbidho byāpiko, opasilesiko, vesayiko sāmīpiko cāti. tattha byāpiko tāva-jalesu khīraṃ tiṭṭhati, tilesu telaṃ, ucchūsu raso. opasilesiko-pariyaṅke rājā seti, āsane upaviṭṭho saṅgho. vesayiko-bhūmīsū manussā caranti, antalikkhe vāyū vāyanti. Ākāse sakuṇā pakkhandanti. sāmīpiko-vane hatthino caranti, gaṅgāyaṃ ghoso tiṭṭhati, vaje gāvo duhanti, sāvattihyaṃ viharati jetavane.*
- 36) Sadd 572: *so'yam okāso catubbidho: vyāpiko opasilesiko sāmīpiko vesayiko ti. tattha vyāpiko nāma sakalo pi ādhārabhūto attho ādheyyena patthaṭo hoti, taṃ yathā: tilesu telaṃ, ucchūsu raso, dadhimhi sappī ti; opasilesiko nāma paccekasiddhānaṃ bhāvānaṃ yattha upasilesu upagamo hoti, taṃ yathā: kaṭe nisīdatī ti; sāmīpiko nāma yattha samīpe sāmīpikavohāraṃ katvā ādhārabhāvo vikappiyati, taṃ yathā: "sāvattihyaṃ viharati", gaṅgāyaṃ vajo ti. (...) vesayiko*

## 8. sāmi의 정의<sup>37)</sup>

sāmi는 속격이라고 표현되는 모든 구문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이다. KV와 Sadd는 6종의 kāraka를 각각 설명한 후 sāmi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Sadd 574는 6격(속격)이 호격과 마찬가지로 kāraka 즉, [동사의] 행위와 관계된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sup>38)</sup> KV 283은 sāmi에 대한 정의와 그에 대한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소유물을 가진 자가 sāmi이다. 소유물을 가진 자, 그것은 sāmi라고 칭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그 비구의 뿔’, ‘그 비구의 발우’, ‘그 비구의 법의’, ‘자신의 입.’ sāmi에 대해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규칙 “sāmismim chaṭṭhi”에 있는 sāmi의 쓰임 때문이다.<sup>39)</sup>

Sadd 575는 sāmi에 대한 정의와 그에 대한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부(富)를 가진 자, 또는 주인을 가진 것, 그것이 sāmi이다. 부를 가진 것, 주인을 가진 것, 소유자를 가진 것, 그룹을 형성하는 것, 또는 부분을 가진 것은 sāmi라고 칭한다. 여기서도 단어 vā(또는)는 선택적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다른 의미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 예는 다

---

nāma yattha aññatthābhāvavasena desantarāvachedavasena vā  
ādhāraparikappo, taṃ yathā: bhūmisu manussā jalesu macchā ākāse  
sakuṇā ti.

37) 상기의 6종 kāraka에 대해서는 KV와 Sadd에서 정의와 유형을 다루고 있지만, sāmi에 대해서는 유형을 따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지 않다.

38) Sadd 574: na chaṭṭhivihitatto kārakaṃ yathāmantaṇaṃ.

39) KV 283: yassa vā pariggaho taṃ sāmi. yassa vā pariggaho, taṃ  
sāmisaññaṃ hoti. tassa bhikkhuno paṭiviso, tassa bhikkhuno patto,  
tassa bhikkhuno cīvaraṃ, attano mukhaṃ. sāmīccanena kvattho?  
sāmismim chaṭṭhī.

음과 같다.] ‘왕의 재산’, ‘왕의 사람’, ‘사람들의 왕’, ‘왕의 나라’, ‘나라의 소유자’, ‘망고 숲에서 멀지 않은 곳’, ‘곡식의 더미’, ‘나무의 가지’, ‘금[으로 만든] 제품’, ‘떨어진 곡식[으로 만든] 곡분(穀粉)’ 등이 있다.<sup>40)</sup>

Sadd는 sāmī에 대한 정의와 예를 제시한 후에 sāmī가 kāraka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sāmī는 동사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kāraka가 아니다. ‘rañño puriso(왕의 사람)’라고 말할 때 왕은 [샷을] 주고 [그] 사람은 [샷을] 받기 때문에 rājapuriso(왕의 사람= 왕이 고용한 사람)라고 하는 것처럼, 소유자의 존재는 행위와 [어떤] kāraka가 존재함으로써 이해된다.<sup>41)</sup>

### III. kāraka에 대한 격의 배정과 상호관계

이 장에서는 kāraka에 대한 격 [어미]의 배정과 이 양자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KV와 Sadd에는 kattu를 비롯한 6종의

40) Sadd 575: yassa saṃ yassa vā pati, taṃ sāmī. yassa atthajātassa dhanam yassa vā pati yassa vā sāmī, yassa vā samūho yassa vā awayavo, taṃ atthajātaṃ sāmisaññaṃ hoti. idhā pi vāsaddo vikappanatto, tena aññe pi atthā yojetabbā: rañño dhanam, rañño puriso, purisassa rājā, rañño raṭṭham, raṭṭhassa sāmī, ambavanassa avidūre, dhaññanam rāsi, rukkhassa sākā, suvaṇṇassa vikati, bhaṭṭhadhaññanam sattu icc evamādīni bhavanti.

41) Sadd 575: kiriyābhisambandhābhāvā n’esā kārakatā sambhavati; sāmībhāvo hi kiriyā-kārahābhāvassa phalabhāvena gahito, tathā hi rañño puriso ti vutte, yasmā rājā dadāti puriso ca patigaṇhāti, tasmā ‘rājapuriso’ti viññāyati.

kāraka와 sāmi에 관한 규칙들 다음에 kāraka에 대한 격의 배정에 관한 규칙들이 이어서 제시된다. KV와 Sadd와 같은 빠알리어 전통문법서는 격어미의 그룹을 1격(paṭhamā vibhatti), 2격(dutiyā vibhatti), 3격(tatiyā vibhatti) 등 총 7종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격어미 그룹이 문장에서 어떤 kāraka에 배정되는지 보여준다. 빠알리어 전통문법서에서 제시하는 격어미 그룹에 대한 용어와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는 격어미 그룹에 대한 용어를 대치시키면 다음과 같다.<sup>42)</sup>

<표> 격어미 그룹에 대한 용어 비교

격어미 그룹에 대한 용어		
빠알리어 전통문법서(Pāli)	빠알리어 전통문법서(국역)	통용어
paṭhamā vibhatti	1격	주격
dutiyā vibhatti	2격	대격
tatiyā vibhatti	3격	구격
catutthī vibhatti	4격	위격
pañcamī vibhatti	5격	종격
chaṭṭhī vibhatti	6격	속격
sattamī vibhatti	7격	처격

앞서 6종의 kāraka와 sāmi의 정의와 용법을 설명하는 규칙에서 해당 kāraka의 설명 목적을 묻는 질문이 나왔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는 어떠한 규칙에 해당 kāraka의 쓰임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서 ‘어떠한 규칙’은 kāraka에 관한 규칙들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격의 쓰임에 관한 규칙 중 하나’이며, 해당 kāraka의 격어

42)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격어미 자체에 차이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각 격에 해당하는 어미들을 일일이 제시하지 않았다.

미 배정을 보여주는 규칙이다. kāraka에 대한 격의 배정을 보여주는 것에 앞서 6종의 kāraka와 sāmi의 정의와 용법을 먼저 제시한 점도 kāraka 분석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KV와 Sadd의 규칙에 차이가 있는 kattu 관련 규칙만 두 문법서의 내용을 다 제시하고 그 외 kāraka는 비교적 더 자세한 규칙내용을 담고 있는 KV 규칙만 제시하겠다. kattu부터 각 kāraka에 어느 격어미가 배정되는 지 살펴보겠다.

## 1. kāraka에 대한 격의 배정

### 1) kattu에 대한 격의 배정

KV의 kattu-kāraka의 정의와 용법을 설명하는 규칙에 ‘kattu에 대해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규칙 “kattari ca”에 있는 kattu의 쓰임 때문이다.’라고 나온다. “kattari ca”는 규칙 KV 288로서, 수동태 문장의 kattu(논리상의 주어)에 3격어미가 배정됨을 보여준다.

kattu를 나타낼 때 [3격어미도 붙는다.] kattu를 나타낼 때에 3격어미도 붙는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사람이 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왕이 사람을 죽였다.)’, ‘공덕이 yakkha에 의해 지어졌다.(= yakkha가 공덕을 지었다.)’, ‘사람이 뱀에게 물렸다.(= 뱀이 사람을 물었다.)’<sup>43)</sup>

능동태 문장의 주어에는 1격어미가 붙지만, 상기 예문의 수동태 문장 내 주어<sup>44)</sup>에는 3격어미가 붙는다. KV의 이 규칙에서 빠진

43) KV 288: kattari ca. kattari ca tatiyāvibhatti hoti. raññā hato poso, yakkhena dinno varo, ahinā daṭṭho naro.

44) 상기 예문의 순수행위자 즉, 주어는 각각 왕, yakkha, 뱀이다.



것이 있는데, kattu가 능동태 문장 속 문법적 주어일 경우의 격어미 배정이다. ‘kattari ca’의 ‘ca(그리고, 또한)’가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지만 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없다. KV의 규칙 ‘kattari ca’에 상응하는 Sadd의 규칙은 ‘kattari paṭhamā tatiyā ca’(Sadd 594)이다. 이 규칙이 KV보다 더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살펴보겠다.

kattu를 나타낼 때 1[격과] 3[격어미가 붙는다.] 정형동사가 술어로 쓰인 문장의 kattu(문법상 주어)를 나타낼 때 1격어미가 붙고, 수동태 문장의 kattu(논리상 주어)를 나타낼 때 3격어미가 붙는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세존께서 법을 설하신다.’, ‘법은 세존에 의해 설해진다.’ (...)<sup>45)</sup>

## 2) kamma에 대한 격의 배정

앞장에 제시한 kamma-kāraka의 정의와 용법을 설명하는 규칙에 ‘kamma에 대해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규칙 “kammatthe dutiyā”에 있는 kamma의 쓰임 때문이다.’라고 나온다. “kammatthe dutiyā”는 규칙 KV 297과 Sadd 580<sup>46)</sup>으로서, 목적어로서의 kamma에 2격어미가 배정됨을 보여준다.

kamma를 나타낼 때 2[격어미가 붙는다.] kamma를 나타낼 때 2격어미가 붙는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소를 죽인다.’, ‘벼를 베는다.’, ‘칼을 만든다.’, ‘물 단지를 만든다.’, ‘마차를 만든다.’, ‘법을 듣는다.’, ‘부처님을 존경한다.’, ‘말을 한다.’, ‘밥을 짓는다.’, ‘도둑을 죽인다.’<sup>47)</sup>

45) Sadd 594: kattari paṭhamā tatiyā ca. ākhyātābhīhite kattari paṭhamā vibhatti hoti, kitākhyātehi anabhīhite kattari tatiyā vibhatti hoti.

Bhagavā dhammaṃ deseti, Bhagavatā dhammo desiyyati, (...).

46) Sadd 580: kammatthe dutiyā. rathaṃ karoti, gāvaṃ dohati.

47) KV 297: kammatthe dutiyā. kammatthe dutiyāvibhatti hoti. gāvaṃ hanati, vihayo lunāti, satthaṃ karoti, ghaṭaṃ karoti, rathaṃ karoti,

## 3) karaṇa에 대한 격의 배정

앞장에 제시한 karaṇa-kāraṇa의 정의와 용법을 설명하는 규칙에 ‘karaṇa에 대해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규칙 “karaṇe tatiyā”에 있는 karaṇa의 쓰임 때문이다.’라고 나온다. “karaṇe tatiyā”는 규칙 KV 286과 Sadd 591<sup>48)</sup>으로서, karaṇa에 3격어미가 배정됨을 보여준다.

karaṇa를 나타낼 때 3[격어미가 붙는다.] karaṇa를 나타낼 때 3격어미가 붙는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불로 오두막을 태운다.’, ‘나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몸으로 일을 한다.’<sup>49)</sup>

## 4) sampadāna에 대한 격의 배정

앞장에 제시한 sampadāna-kāraṇa의 정의와 용법을 설명하는 규칙에 ‘sampadāna에 대해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규칙 “sampadāne catutthī”에 있는 sampadāna의 쓰임 때문이다.’라고 나온다. “sampadāne catutthī”는 규칙 KV 293과 Sadd 605<sup>50)</sup>으로서, sampadāna에 4격어미가 배정됨을 보여준다.

sampadāna를 나타낼 때 4[격어미가 붙는다.] sampadāna를 나타낼 때 4격어미가 붙는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부처님, 법 또는 승가에 공양을 올린다.’, ‘수행자나 브라만에게 베푸는 자.’<sup>51)</sup>

---

dhammaṃ suṇāti, buddhaṃ pūjeti, vācaṃ bhāsati, taṇḍulaṃ vacati, coraṃ ghāteti.

48) Sadd 591: karaṇe tatiyā. agginā kuṭiṃ jhāpeti, dhanunā vijjhati.

49) KV 286: karaṇe tatiyā. karaṇakāraṇe tatiyāvibhatti hoti. agginā kuṭiṃ jhāpeti, manasā ce paduṭṭhena, manasā ce pasannena, kāyena kammaṃ karoti.

50) Sadd 605: sampadāne catutthī. Buddhassa dānaṃ deti, “dātā hoti samaṇassa vā brāhmaṇassa vā”.

51) KV 293: sampadāne catutthī. sampadānakāraṇe catutthivibhatti hoti.

5) apādāna에 대한 격의 배정

앞장에 제시한 apādāna-kāraka의 정의와 용법을 설명하는 규칙에 ‘apādāna에 대해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규칙 “apādāne pañcamī”에 있는 apādāna의 쓰임 때문이다.’라고 나온다. “apādāne pañcamī”는 규칙 KV 295와 Sadd 607<sup>52)</sup>으로서, apādāna에 5격어미가 배정됨을 보여준다.

apādāna를 나타낼 때 5[격어미가 붙는다.] apādāna를 나타낼 때 5격어미가 붙는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마음을 악으로부터 멀리해야 한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저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난다.’<sup>53)</sup>

6) sāmi에 대한 격의 배정

앞장에 제시한 sāmi<sup>54)</sup>의 정의와 용법을 설명하는 규칙에 ‘sāmi에 대해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규칙 “sāmismim chaṭṭhi”에 있는 sāmi의 쓰임 때문이다.’라고 나온다. “sāmismim chaṭṭhi”는 규칙 KV 301과 Sadd 609<sup>55)</sup>로서, sāmi에 6격어미가 배정됨을 보여준다.

sāmi를 나타낼 때 6[격어미가 붙는다.] sāmi를 나타낼 때 6격어미가 붙는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그 비구의 뒹’, ‘그 비구의 발우’, ‘그 비구의 법의’, ‘자신의 입.’<sup>56)</sup>

---

Buddhassa vā dhammassa vā saṅghassa vā dānaṃ deti, dātā hoti samaṇassa vā brāhmaṇassa vā.

52) Sadd 607: apādāne pañcamī. “pāpā cittaṃ nivāraye; abbhā mutto va candimā; bhayā muccati so naro”.

53) KV 295: apādāne pañcamī. apādānakārake pañcamīvibhatti hoti. pāpā cittaṃ nivāraye, abbhā muttova candimā, bhayā muccati so naro.

54) sāmi는 kāraka에 속하지 않으므로 sāmi-kāraka라고 하지 않았다.

55) Sadd 609: chaṭṭhi sāmimhi.

## 7) okāsa에 대한 격의 배정

앞장에 제시한 okāsa-kāraka의 정의와 용법을 설명하는 규칙에 ‘okāsa에 대해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규칙 “okāse sattamī”에 있는 okāsa의 쓰임 때문이다.’라고 나온다. “okāse sattamī”는 규칙 KV 302와 Sadd 630<sup>57)</sup>으로서, okāsa에 7격어미가 배정됨을 보여준다.

okāsa를 나타낼 때 7격어미가 붙는다.] okāsa를 나타낼 때 7격어미가 붙는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물 부근 깊은 곳에’, ‘마음은 악행을 즐긴다.’, ‘명문가의 젊은이가 부처님 안에서 청정범행을 닦는다.’<sup>58)</sup>

## 8) 기본 배정 외의 격어미 배정

KV와 Sadd는 kāraka에 대한 격의 기본적인 배정 외에도 여러 규칙들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한다. 다음의 규칙들은 kāraka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kāraka에 대해 기본적으로 배정된 격어미가 예외적으로 다른 격어미로도 바꾸어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KV 290(sattamyatthe ca)와 Sadd 602(sattamitatthe)는 7격어미가 가지는 의미에 3격어미의 활용을 보여주고, KV 306(kvaci dūtiyā chaṭṭhinam atthe)와 Sadd 588(kvaci chaṭṭhinam atthe an-

56) KV 301: sāmismiṃ chaṭṭhī. sāmismiṃ chaṭṭhīvibhatti hoti. tassa bhikkhuno paṭivīso, tassa bhikkhuno patto, tassa bhikkhuno cīvaram, attano mukhaṃ.

57) Sadd 630: okāse sattamī. “gambhīre gādham edhati; pāpasmim ramati mano”, Bhagavati brahmacariyaṃ vasati kulaputto, kamsapātiyaṃ bhūñjati.

58) KV 302: okāse sattamī. okāsakārake sattamīvibhatti hoti. gambhīre odakantike, pāpasmim ramati mano, bhagavati brahmacariyaṃ vussati kulaputto.

tarādiyoge)는 6격어미가 가지는 의미에 2격어미의 활용을 보여준다. KV 307(tatīyā-sattamīnañ ca)와 Sadd 589(tatīyā-sattamīnañ ca)는 3격과 7격어미가 가지는 의미에 2격어미의 활용을, KV 308(chaṭṭhī ca)와 Sadd 634(kvaci tatīyā-sattamiyatthe chaṭṭhī)는 3격과 7격어미가 가지는 의미에 6격어미의 활용을 보여준다. KV 309(dutiyā-pañcamīnañ ca)와 Sadd 640(dutiyā-pañcamīnañ ca)는 2격과 5격어미가 가지는 의미에 6격어미의 활용을, KV 312(pañcamyatthe ca)와 Sadd 643(pañcamiyatthe ca)는 5격어미가 가지는 의미에 7격어미의 활용을 보여준다.<sup>59)</sup>

이와 같이, 기본 배정에서 제시된 격어미의 활용범위는 각각의 격어미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예외적이지만 다른 격어미로도 바꾸어 쓸 수 있다.

## 2. 격과 kāraka의 상호관계

상기와 같이 이 장에서 kāraka에 대한 격의 배정을 제시한 이유는 제II장에서 살펴본 추상적인 kāraka가 문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격의 배정’이라는 단순한 설정이지만, 이 단순한 설정이 kāraka와 격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격과 kāraka의 상호관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빠알리어 전통문법서에는 격어미 그룹을 1격(paṭhamā vibhatti), 2격(dutiyā vibhatti), 3격(tatīyā vibhatti) 등 7종으로 분류하고, 이와 별도로 kāraka를 kattu, kamma, karaṇa 등 6종으로 분류한다. 6종 kāraka에 이어 sāmī도 언급한다. 그렇다면 격어미 그룹은

59) 상기의 문법규칙들에는 kāraka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하므로, 본고에서는 이 규칙들의 용법만 간략히 제시하였다.

kāraka와 무슨 관계일까. 본래는 분리되어있지만 배정에 의해 결합되기도 하는 관계이다. kāraka는 문장에서 행위와 명사와의 근원적인 관계이지만, 문장에서 이것을 표현해내는 방편은 바로 격어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6종의 kāraka와 sāmi를 드러내기 위해 일곱 가지의 격어미가 배정된다.

6종의 kāraka와 sāmi에 대한 격의 기본적인 배정을 살펴본 결과, kattu에는 문장에 따라 1격어미 또는 3격어미가 붙고, kamma에 2격, karaṇa에 3격, sampadāna에 4격, apādāna에 5격, sāmi는 6격, okāsa에 7격어미가 붙는다. 결국 그렇게 격의 배정이 이루어질 것이었다면 왜 문법가들은 kāraka와 격어미의 쓰임을 굳이 따로 분리해서 다루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모든 kāraka가 격어미로 표현이 되지만, 모든 격어미가 kāraka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KV와 Sadd는 kāraka 외의 격어미 활용에 대한 규칙들도 제시하고 있었다. 둘째, 전통문법서에는 기본적인 배정 외에도 여러 규칙들을 통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하는데, 한 종류의 격어미가 항상 하나의 kāraka와 대응 관계에 놓이는 것은 아니었다. 기본 배정에서 제시된 격어미의 활용범위는 각각의 격어미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격어미로도 바꾸어 쓸 수 있었다.

Gupta도 언급했듯이, 비록 문법가들이 kāraka와 격어미 그룹을 분리해서 다루었다고 해도, 이들은 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 양자 중 어떤 하나도 다른 하나의 도움 없이는 이해될 수가 없다.<sup>60)</sup> 다시 말해서, 문장 내 단어의 의미를 전달함에 있어서 격어미 없이는 kāraka가 표현되지 않고, kāraka 없이는 격어미가 의미 없는 기호에 불과할 뿐이다. 분리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밀착

60) Gupta(2003) p. 69 참조.

관계에 있는 격과 kāraka이기 때문에 kāraka의 분석은 격을 의미론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IV. 나가는 말

빠알리어 전통문법서인 KV와 Sadd에서는 kāraka를 kattu, kamma, karaṇa, sampadāna, apādāna, 그리고 okāsa 이렇게 6종으로 분류한다. 현대적 표현으로 속격의 용법과 같은 sāmi는 동사가 아닌 명사와의 관계에 있으므로 엄밀히 말해 kāraka가 아니지만 문장 내 비중이 크므로 kāraka와 함께 다루었다. 본고 제II장인 kāraka의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kāraka는 문장에서 행위를 이루는 요소이며 행위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kattu는 [행위에서] 가장 주가 되면서 행위를 행하는 자이다. kattu의 유형으로는 순수 행위자, 원인/사역 행위자, 대상 행위자가 있다. kamma는 행위의 대상이다. kamma의 유형으로는 생겨나는 것, 변화되는 것, 도달하는 것이 있다. karaṇa는 행하는 수단이다. karaṇa의 유형으로는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 있다. sampadāna는 주고자 할 때의 대상, [어떤 것에] 기뻐하는 대상이다. sampadāna의 유형으로는 [받는 대상이 받는 것을] 거절하지 않음, [받는 대상이 줄 것을] 요청함, [받는 대상이 받는 것을] 승낙하는 것이 있다. apādāna는 [무엇에서] 떠나가는 것, [무엇에서] 생기는 두려움, 또는 [무엇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apādāna는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이전 신체적 결합에서 떠나는 것과 이전 정신적 결합에서 떠나는 것의 구분이 있고, 움직이는 지점, 움직이지 않는 지점, 움직이는 지점도 움직이지 않는 지

점도 아닌 것의 구분도 있다. 그리고 영역이 표현됨, 영역이 퍼져 있음, 영역이 승인되어야 함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okāsa*는 놓여 있는 것이다. *okāsa*의 유형으로는 스며듦, 근접, 영역에 속함, 근처가 있다. *sāmi*는 부(富)를 가진 것, 주인을 가진 것, 소유자를 가진 것, 그룹을 형성하는 것, 또는 부분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인 *kāraka*가 문장에서 발현되는 수단이 바로 격어미인데, KV와 Sadd에서는 격어미의 그룹을 1격(*paṭhamā vibhatti*), 2격(*dutiyā vibhatti*), 3격(*tatiyā vibhatti*) 등 총 7종으로 분류하고 6종의 *kāraka*와 *sāmi*에 어느 격어미가 배정되는지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kattu*에는 문장에 따라 1격어미 또는 3격어미가 붙고, *kamma*에 2격, *karaṇa*에 3격, *sampadāna*에 4격, *apādāna*에 5격, *sāmi*는 6격, *okāsa*에 7격어미가 붙는다. 기본적인 배정 외에 많은 규칙들을 통해서 예외적인 경우도 제시한다. 모든 격어미가 *kāraka*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 종류의 격어미가 항상 하나의 *kāraka*와 대응 관계에 놓이는 것도 아니었다. 기본 배정에서 제시된 격어미의 활용범위는 각각의 격어미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격어미로도 바꾸어 쓸 수 있었다.

빠알리어 문법은 주격, 대격, 구격 등 특정 격에 해당하는 어미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분리되어 있는 격어미와 *kāraka*가 배정에 의해 상호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kāraka*의 적용범위가 비교적 넓은 뿐만 아니라, 하나의 격어미가 항상 하나의 *kāraka*와 대응 관계에 놓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kāraka*의 정의와 유형을 분석하여 적용범위를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빠알리어 문장에서 기호와 같은 격어미는 *kāraka*를 통해 의미가 발현되고, 추상적인 개념인 *kāraka*는 격어미를 통해 구체화 된다는 점에서 격의 의미론적 이해를 위한 *kāraka* 분석은 상당히 중요하다.



## 약호 및 참고 문헌

KV : *Kaccāyanappakaraṇaṃ*. Senart(1871).

Sadd : *Saddanīti*. Smith(1930).

Bode, Mabel Haynes (1909). *The Pāli Literature of Burma*. London: The Royal Asiatic Society.

Collins, Steven (2006). *A Pali Grammar for Students*. Chiang Mai: Silkworm Books.

Deokar, Mahesh A. (2002). *A Comparative Study of the Pāṇinian Grammatical Tradition and the Three Grammars of Pali*. Pune: University of Pune.

Gupta, K. Manohar (2003). *Linguistics in Pāli*. New Delhi: Sundeep Prakashan.

Kahrs, Eivind G. (1992). “Exploring the Saddanīti”, *Journal of the Pali Text Society*, Vol. 17. pp. 1-212.

Malai, Phramaha Thiab (1997). *Kaccāyana-vyākaraṇa: A Critical Study*, Pune, University of Pune.

Pind, Ole Holten (1989). “Studies in the Pāli Grammarians I”, *Journal of the Pali Text Society*, Vol. 13. pp. 33-82.

Senart, M. E. ed. (1871). *Kaccāyanappakaraṇaṃ*. Paris: Journal Asiatique.

Smith, Helmer ed. (1930). *Saddanīti*. Oxford: The Pali Text Society.

Abstract

The Importance of the Analysis of Kāraka for  
the Semantic Comprehension of Cases in Pāli

Kim, Seori

(Dongguk University, Gyeongju Campus)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ascertain the importance of the analysis of kāraka for the semantic comprehension of cases in Pāli. The purpose can be subdivided as follows. This paper aims to: i) clearly separate kāraka and case ending and to ascertain the mutual relation of those based on traditional Pāli grammars, ii) present the application of each kāraka through analysing the definitions and types of six kāraka along with sāmi, iii) focus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mutual relation between kāraka and case ending from the semantic perspective.

For this research, the related rules in *Kaccāyana-vyākaraṇa*(KV) and *Saddanīti*(Sadd) were translated into Korean and analysed. As a result of that, the definitions and types of six kāraka, viz., kattu, kamma, karaṇa, sampadāna, apādāna, okāsa, along with sāmi were clarified in detail. And the assignment of each case ending to each kāraka were also presented.

KV and Sadd do not use grammatical terms such as nominative case, accusative case, instrumental case, and so forth. Those grammars divide the case groups into seven such as paṭhamā vibhatti, dutiyā vibhatti, tatiyā vibhatti, and

so forth, then assign a case(cases) to kāraka. Basically, paṭhamā vibhatti or tatiyā vibhatti is added to kattu according to sentence. And, dutiyā vibhatti is added to kamma, tatiyā vibhatti to karaṇa, catutthī vibhatti to sampadāna, pañcamī vibhatti to apādāna, chaṭṭhī vibhatti to sāmī, and sattamī vibhatti to okāsa. But, the other assignments in many rules are also presented. A case group is not absolutely assigned to a single kāraka, and a kāraka is not always expressed as a single case.

The important factors of the analysis of kāraka for the semantic comprehension of cases are as follows. Firstly, as each kāraka has a wide application and various typ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kāraka for grasping role and meaning of a word in a sentence. Secondly, a case group is not absolutely assigned to a single kāraka, and a kāraka is not always expressed as a single case. Thirdly, without case, kāraka cannot be expressed for conveying the meaning of word, and without kāraka, case is nothing but a sign. Therefore, the analysis of kāraka for the semantic comprehension of cases is necessary and important.

**Keywords:** kāraka, vibhatti, grammatical case, Pāli grammar, Kaccāyana-vyākaraṇa, Saddanīti

투고 일자 : 2017년 3월 31일

심사 기간 : 2017년 4월 5일 ~ 23일

게재 확정일 : 2017년 4월 24일